

보도 일시	2022. 12. 26.(월) 09:00	배포 일시	2022. 12. 26.(월) 09:00
담당 부서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책임자	과장 김도영 (044-203-3241)
		담당자	사무관 장정미 (044-203-3245)

더욱 쉽고 편리해진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이용해보세요

- '21년 9월 개통 이후 사용자 중심으로 불편 사항 개선 통계분석 등 신규 기능 개발
- 출판사 도서 정보 입력 간편히, 서점·도서관은 더 많은 정보를, 저자는 판매 부수 직접 확인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 이하 진흥원)과 함께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하 출판전산망)을 개선해 출판사와 작가 등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더욱 쉽고 편리해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로 개편된 서비스는 12월 26일(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된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2017년 송인서적 부도 이후 출판도서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의 생산·유통·판매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출판전산망(누리집: bnk.kpipa.or.kr)을 구축하고, 작년 9월에 개통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선 사업은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지역서점과 도서관을 위한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출판전산망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출판사, 지역서점, 도서관, 저자 등 사용자 모두에게 유용한 출판전산망으로 개선

첫째, 출판사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출판사가 출판전산망에 입력하는 표준 서지정보(메타데이터) 항목이 너무 많다는 의견을 반영해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납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출판사의 직접 입력항목을 줄였다. 또한, 전산망에서 ▲ 출판사의 신간 도서 소개 홍보물(카탈로그)을 쉽게 제작해 원하는 서점 유통사 등에 한 번에

배포·전송할 수 있도록 했고, ▲ 실시간으로 도서 판매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 지역·서점·나이·성별 등, 다각적인 통계분석 서비스도 제공해 출판 기획과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이번 개선 조치로 지역서점과 도서관은 ▲ 신간과 출간예정도서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게 되었고, ▲ 해당 지역의 도서 판매통계 자료를 제공받아 수서(收書) 기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역서점 도서 재고관리 서비스도 신설해 서점주가 재고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이러한 지역서점 재고정보는 지역서점 누리집 ‘서점온(ON)*’의 도서 예약 서비스(예약드림**)와 연계해 소비자들이 도서를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도서관 사서를 위해서는 도서 주문을 위한 비교 견적과 주문목록 내려받기 기능을 신설해 다량의 도서 구매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 서점온(ON): 지역서점 관련 지원 정책과 지자체·민간 지역서점 인증 현황, 서점별 도서 보유 현황 등을 제공하는 지역서점 플랫폼(www.booktown.or.kr)

** 예약드림: 소비자가 인근 서점의 도서 보유 현황을 파악해 예약구매를 할 수 있는 서점온(ON) 서비스

셋째, 저자를 위한 도서 판매동향 보고서 신청과 확인 서비스를 개선했다. 저자가 출판전산망에서 보고서를 신청하면 출판사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도서별로 전산망에 집계된 판매통계가 담긴 보고서가 생성되어 인증마크가 표기된 피디에프(PDF) 형태로 저자에게 전송된다. 그동안은 저자가 출판사에 보고서를 별도로 요청해야 했고, 출판사가 출판전산망을 통해 통계파일(엑셀)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라 신청하기도 어렵고 통계 자료를 한눈에 보기도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출판사와 지역서점의 출판전산망 가입 확대와 전산망 활성화에 주력

문체부와 진흥원은 그동안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으며 이제는 출판전산망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용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출판전산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체험을 확산하고, 우수 이용사례를 알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사용자 편의성을 지속 보완하고 출판전산망 산업통계를 기반으로 국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출판사와 서점의 가입을 확대하는 데도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판·서점·유통계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판전산망이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하고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과 운영방식을 계속 논의해 갈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도서 유통의 투명성 확보라는 처음 취지에 맞게 출판사와 서점의 가입을 확대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기능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등 출판전산망이 모두에게 유익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출판전산망이 출판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출판사와 서점·유통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붙임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사업 개요

담당 부서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책임자	과장 김도영 (044-203-3241)
		담당자	사무관 장정미 (044-203-3245)
<공동>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통합전산망팀	책임자	팀장 김진우 (063-219-2771)
		담당자	주임 류상만 (063-219-2775)



붙임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사업개요

< '21년 9월 개통시 >

도서정보 31,400종
출판사 1,700개사, 서점 330개사



< '22년 12월 21일 현재 >

도서정보 235,930종
출판사 2,982개사, 서점 343개사

□ 사업 개요 (개통일: '21. 9. 29.)

- (추진배경) 송인서적 부도('17년 1월) 이후 출판유통의 투명성·합리성 제고를 위해 출판물의 생산·유통·판매 정보의 통합 관리 필요성 대두
 - 출관계 요구를 반영, 제4차 출판문화진흥 5개년 계획('17~'21)에 따라 개발 추진
 - 출판·서점·유통·학계가 참여하는 출판유통정보화위원회 운영('19~'21년 26회 운영)
- (주요기능) ▲ 메타데이터* 등록·공유, ▲ 산업통계 제공, ▲ 도서 재평가 공표 등
 - * 메타데이터: ISBN, 출판사, 가격, 책 소개, 서평 등 출판유통에 필요한 종합적인 도서정보
- (기간/예산) '18 ~ 계속 / 구축 45억 원('18~'20), '22년 운영비 19억 원
- (운영위원회) 통전망의 운영정책 결정, 의견수렴을 위해 출판·유통·서점계 등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중('21년 12월~매월 1회)

□ 서비스 개념도

<출판사>	<유통사/서점>	<일반 국민>
·신간정보 등록, 도서재평가	·신간확인, (도서 주문)	·판매순위·신간 정보
·판매내역 및 재고 확인	·판매결과 전송	·도서·출판사 검색 서비스
↓	↓	↓
▶ 유통판매 현황 실시간 파악 ▶ 소비동향 근거한 기획 출판	▶ 판매재고 관리 효율성 제고 ▶ 투명한 정산체계 마련	▶ 정확한 핵심단어(키워드) 및 정보 제공으로 책의 발견성 제고

도서 메타데이터의 표준화·고품질화,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출판유통구조 구축

